

‘포스트 국감’ 서도 대장동·고발사주 대치정국 이어진다

윤영위·정보위 국감서 격돌 예상
민주 “고발사주 몸통은 윤” 부각
국힘, 대장동 특검 관철 압박
이재명 對 윤석열 대리전 양상

올해 국감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장

동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압박하는 카드로 떠오르고 있고,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윤영위(26~27일), 정보위(28일~11월 2일) 국감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돈 받은 자 = 도둑’이라는 논리가 ‘대장동 여론전’에서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보고 의혹의 핵심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의 몸통으로 윤 전 총장을 거듭 지목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압박할 방침이다.
또한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SNS 사진’ 논란을 계기로 윤 전 총장의 후보 자질론도 더욱 부각하겠다는 생각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24일 “국감은 야당의 무대라는 게 공식인데 이렇게 야당이 헛발질만 하며 맥없이 끝난 국감은 처음”이라며 “국감을 거치면서 여권에 비우호적이었던 대장동 여론도 서서히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민의힘은 소위 ‘이재명 게이트’ 여론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대장동 특검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국회 차원의 위증죄 고발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특검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의 공조에도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특검·국조 요구를 같이 할 때 함께하지 못했던 정의당이

이제 공개적으로 특검 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야권 공동전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외에도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조폭 연루 논란 등으로 전선을 더 넓힐 계획이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감사는 사실상 여야의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해명하는데 집중되고 있으며 남은 일정도 각 당에서 이에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고흥군수 예비경선 공영민·박진권 2명 통과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스타트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수 예비경선에서 공영민 후보와 박진권 후보 2명이 통과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후보 난립과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군수 후보 예비경선을 치러 2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원과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공영민, 박진권(가나다 순) 후보가 통과했으며, 김학영·송영중·장세선 후보 등 3명은 컷오프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 득표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예비경선은 고흥군수 예비후보 5명이 조기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해 전남도당 주관으로 실시됐다.
공영민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을 거친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현 군수에 맞서 47.37%의 지지를 받으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권 후보는 전남도의원과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흥 정치의 미래’로 주목을 받고있는 박 후보는 고흥정치의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50대 기수론을 외치고 있다.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고, 고흥 정치의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 본 경선은 민주당 중앙당의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예비후보 5명의 합의로 추진된 이번 예비경선이 당초 추진 명분대로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새로운 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전 경제부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연합뉴스

“문 정부 철학 계승하며 새롭게 변화시켜야”

송영길 ‘이재명 정권교체론’ 해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중요 철학과 내용,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해 나가지만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 당선’이 정권교체라는 말씀이 파문을 불러왔다’는 질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되, 노무현 정권은 또 새로운 정권이지 그냥 김대중 정권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면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교체론’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기본 노선은 계승해 가지만 낡은 정치를 극복해 가고, 또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새로운 개혁을 해 내 게 노무현 정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미흡한 점이 많았고, 소득주도성장도 취지는 좋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 같은 게 있었다”며 “이런 미흡한 점들을 잘 보완시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

다’는 지적에 대해 “여야가 비슷한 면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우리 당은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전 후보보나 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해 온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이라며 야당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거의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 얼음과 솥은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얼음과 솥처럼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이질적인 사람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폭탄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폭탄을 해제하고 있는 것이고, 저기(국민의힘)는 11월 5일을 향해서 짜깁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두고 “일시적 말실수가 아니라 평소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라면서 “특수부 검사가 범죄조직, 조직폭력파 다 루다 보니 싸우다 보면 서로 닳는 것처럼 그런 문화, 군사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버티다 억지로 또 사과했는데 그것도 진정성이 없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3지대 들썩...김동연·안철수 대권 발걸음 빨라진다

김, 새로운 물결 발기인 대회 안, 이르면 31일 출마 선언

대권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새로운 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신당 창당에 시동을 걸었다.
‘새로운 물결’은 정치세력 교체를 통한 기득권 공화국 타파, 기회공화국 전환, 아래로부터의 변화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김 전 부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때 내놓은 핵심 키워드들이다.
김 전 부총리가 얼마나 세력을 모으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제3지대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도 임박한 모

양새다.
국민의당은 최근 당내 대선기획단을 꾸리고 대선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선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내달 5일 이후 공식 출마선언이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선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 협상 또는 선거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선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히고 최종적으로 출마선언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안 대표가 11월 5일 이전에 자신의 결심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으로 보인다”며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 이전에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오는 25일 시작되는 지역 방문 일정 등을 고려하면 31일 출마 선언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대표는 오는 25일 영광 원전을 방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해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을 시작으로 지역을 다니며 중도층을 겨냥한 미래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 이번 대선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 간의 ‘4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창당을 공식화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가세하면 그 이상의 다자 구도가 된다. 안 대표의 경우 제3지대와의 연합이나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담양군 공고 2021-1679호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담양 군기본계획(일부변경), 담양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군기본계획(일부변경) 공청회 및 주민열람 공고

「담양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안), 담양 군기본계획(일부변경), 담양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8조, 「담양군계획조례」 제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담양 군기본계획(일부변경) 공청회 개최 및 주민열람·공고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25.

담 양 군 수

- 계획의 개요**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 다음 가. 사업의 명칭 : 담양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다. 면 적 : 724,546㎡ 마. 사업시행방식 : 수용 및 사용방식
 - 2030 담양 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 : 다음 가. 주요변경 내용 :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변경 등
 - 담양 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변경)(안) : 다음 가. 주요변경 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 724,546㎡)
-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가. 일 시 : 2021. 11.8 (월요일), 오후2시 나. 장 소 : 고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
 - 2030 담양 군기본계획(일부변경) 공청회 가. 일 시 : 2021. 11.8 (월요일), 오후3시 나. 장 소 : 고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
-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 간 : 2021. 11. 8. ~ 2021. 11. 22. (14일간)
 - 나. 장 소 : 담양군청(투자유치과, 도시디자인과), 고서면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청
-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공람장소에 제출
- 기타사항**
 -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투자유치과(T. 061-380-3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본 주민열람 내용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은 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에 의거 14일 동안 실시함

분할합병공고

주식회사 케이테크(당사자)는 2021년 10월 21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의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백천글로벌에 합병하는 목적분할방식의 분할합병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상법 제330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주식회사 백천글로벌은 당사의 채무 중 분할합병으로 이질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는 주식회사 백천글로벌로 이전되지 않는 나머지 사업부문의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서도, 이 해관계자 및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인 2021년 11월 25일까지 당사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주식회사 케이테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243
대표이사 조민영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호석(560802-XXXXXX)
· 최후주소 : 광주 서구 신원길 11-2 (8동동)
피상속인 망 이호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청구자 정병원 2021년 3월 31일로 신청하여 2021년 10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바라 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0월 25일
· 상속인 : 이병민(881015-XXXXXX)
광주 남구 호원중앙로 35, 302동 1303호(임암동, 광주호원11H3단지아파트)
· 신고기간 : 2021. 10. 25. ~ 2022. 1. 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이병민의 주소

분실공고

· 분실받은 짐 주소 : 광주 서구 중흥동 전대봉경제 센터플라자 201동 1003호
· 계약자 : 김 정 호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1년 10월 25일

산행안내

11월14일(일)
▲광주서산악회 11월14일(일) 경북 청송 주왕산&절골, 주산지, 트레킹 산행, 영주체육관 05:30, 동아병원 05:35, 롯데백화점 05:40, 광주역 05:45, 문예후문 05:55, 비엔누차장 06:00 *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光州日報
· 배양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행구독 (062)220-0550

69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신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